

부모도 아이들도 '책찾기'가 어렵다

서점매장의 아동도서 디스플레이 제대로 돼 있다

요즘 도심에 밀집되어 있는 대형서점들에 들어서 보면, 유명 백화점을 방불케하는 규모와 시설, 갖가지 진열방식으로 일단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 데는 성공한 듯 싶다. 주위의 스텝바를 비롯해서 일정한 위락시설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면 문구점과 레코딩점, 심지어 산뜻한 분위기의 선물코너까지 한귀퉁이에 자리잡고 있다. 서점의 이러한 분위기는 젊은 이들에게 '그럴듯한' 약속장소를 제공해주기도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誘因으로 작용, 점차 하나의 독특한 '서점문화권'을 형성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서점기능의 다양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점 본래의 기능이 점차 희석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근래의 대형서점들은 구매자 또는 서점을 통한 정보 이용자를 위한 1차적 서비스보다는 외형적 '환경미화'에 보다 치중함으로써 책을 매개로 한 일종의 상업주의에 경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매장과 다름없는 단순분류가 대부분

이러한 경향은 매장의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아동도서 코너의 디스플레이 문제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형서점은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 종교, 예술, 아동, 취미·오락 등으로 매장을 구분, 다시 각 매장마다 분야별로 세분하여 진열·전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거의 통념화된 것으로서 그 기준자체에 대한 이의는 별반 제기되고 있지 않다. 문제는 각 분야별 분류·진열단계가 마치 디스플레이의 거의 모든 단계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분야의 도서들과는 달리, 아직 '좋은 책'에 대한 선별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도서의 경우에는 세심한 전문적 디스플레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일반매장과 다름없는 단순한 분류위주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점에서의 아동도서 코너의 디스플레이 문제는 이상과 같은 전체 매장의 디스플레이 문제와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 외에도 보다 본질적인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번째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아동도서 코너에 대한 서점자체의 '천대'이다. 우선



대형서점의 아동도서코너. 내용별, 연령별로 분류되기보다는 대개 출판사별로 두루뭉수리 진열돼 있다.

다른 코너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보된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그 위치설정에 있어서도 이른바 '중심부'로는 진출하지 못한 채 '주변부'를 맴돌고 있는 실정.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에 있어서의 열악함은 결과적으로 아동도서의 실수요자(학부모와 어린이)뿐만 아니라 잠재적 구매자까지도 놓쳐버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로서적 아동도서 코너 담당자인 정민선씨는 현재 전체 매장에서의 아동도서 코너의 상대적 열세를 인정하면서, 특히 요즘은 매장을 찾는 실수요자로서의 아동들의 증가추세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저희 서점의 경우는 각 층마다 독자적인 전문도서 매장의 성격을 띠면서 고객의 취향에 따라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도서의 경우는 그 수요자의 증가나 중요성에 비해 매장의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디스플레이를 할만한 기본적인 공간이 절대 부족하지요. 부모와 함께 와서 책을 고르던 예전의 풍경과는 달리 요즘은 방과 후 친구들끼리, 또는 국민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는 혼자 찾아와 이 책 저 책을 뒤적거리는 모습이 부쩍 눈에 띄입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출판사별로 적당히 분류돼 있어

다음으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동도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디스플레이의 부재현상이다. 특히 아동도서는 유아기에서부터 국민학교 고학년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정신적 성장단계에 맞는 세심한 내용분류와 진열방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국민학교 3학년인 딸과 함께 모처럼 시내 서점에 들렀다는 주부 김명선씨(32·상도동)는 "진열되어 있는 책만 보고서는 도저히 우리 아이의 나이에 맞는 책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하며 "책의 내용을 일일이 읽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저의 안목으로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책을 고르고 있다"고 책선택의 어려움을 지적한다.

아동도서 코너는 크게 유아용도서와 아동도서로 분류된다. 유아용도서는 대개 이야기그림책과 '우등생 그림교실' '한글공부' 등의 학습용 그림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듣기교육'용 테이프와 숫자카드, 심지어 모빌까지 진열대를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유아용도서들은 대개 백화점식 진열방식으로, 그 모양과 색깔에 있어서도 천대만상. 쉽게 눈에 띄는 원색이 대부분인 이들 유아용도서는 사실 '도서'로 불리우기에는 어색한 면이 없지 않다. 현재 아동도서 코너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유아용도서 중에는 '장난감'에 가까운 놀이기구들이 구매욕을 자극하는 갖가지 포장까지 곁들여 매장의 진열대에 쌓여 있어, 가뜩이나 협소한 매장을 더욱 비좁아 보이게 만드는 주범역할을 하고 있다.

본격적인 아동도서 코너는 현재 참고서, 추리소설, 만화, 동요동시, 창작동화, 명랑소설, 위인전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밖에도 과학도서, 반공도서, 어린이 문고본 서가를 따로 마련해 놓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분류만으로는 '아동도서'가 요구하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더구나 서가에 꽂혀있는 책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제대로 내용분류가 안된 채 출판사별로 '적당히' 정리되어 있는가 하면 내용이 다른 엉뚱한 종류의 책이 꽂혀 있기도 하다.

연령별 차이 고려해야

아동문학가 정채봉씨는 서점에서의 아동도서 디스플레이 문제에 대해 "직접 창작하는 입장에서 봐도 현재 아동들의 다양한 심리적, 정신적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사춘기 연령도 점점 낮아져서 이제는 국민학교 3, 4학년 여자 어린이들에게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임하지는 아동도서는 적어도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정도의 구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그 내용이나 디스플레이 등 아동도서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 수준은 아동들 자신의 의식수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그간 꾸준히 아동도서를 내고 있는 민서출판사 편집과장 이진씨는 아동도서의 디스플레이 문제에까지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출판사 나름의 '한계'를 말한다.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우선 좋은 책과 잘 팔릴 수 있는 책의 적정수준에서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앞섭니다. 실제 판매량을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외의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지의 경우에도 일단 아동들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신경을 쓰지요. 서점에서의 디스플레이 문제에 있어서도, 출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장소지정'을 부탁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아동도서 디스플레이 문제는 서점측에 1차적인 책임이 돌려진다. 서점의 디스플레이를 전담하는 전문가가 전문한 실정에서 잘 팔리는 책 위주의, 시각효과만을 노린 디스플레이는 서점 매장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협소한 공간에 연령별 차이를 무시한 현재의 아동도서 코너는 독자로 하여금 좋은 책을 읽게 하고 또한 출판사에게도 그에 부합되는 책을 만들게 한다는 서점의 적극적인 기능의 측면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